“부처님 가르침 궁금하면 불교대학으로!”

부산 · 경남 불교대 신입생 모집
통도사, 기초–전문 잇는 교육
범어사, 교리 · 경전 중심 운영
홍법사, 1년 과정…명상 신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부산 경남 주요 사찰이 2026학년도 불교대학 및 경전 강좌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각 사찰은 불교 입문자부터 심화 학습을 원하는 재가불자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교리 교육과 경전 중심의 전문 과정을 마련해 체계적인 신도교육을 이어간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 불교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통도사 불교대학은 불교에 관심 있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불교대학 1·2학년 과정과 불교대학원 과정이 운영된다.

불교대학 1학년 과정은 신도 기본교육 과정으로, 불교입문을 교재로 사찰의례와 예절, 불교 문화, 천수경과 반야심경 등 기초 교리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는 통도사 포교국장 신경 스님과 포교과장 무관 스님이 맡는다.

불교대학 2학년 과정은 신도 전문교육의 기초 단계로, 불교개설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불교 기초교리 전반을 다룬다. 화요 오전반, 수요 오후반, 목요 오후반, 토요 오전반으로 운영된다. 조계종 신도기본교육(불교대학 1학년) 수료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조계종 신도증, 종단 필수교육 이수가 수료 요건이다.

불교대학원 과정은 신도 전문교육 심화 과정이다. 불교상용의례, 대승기신론, 대방광불화엄경, 묘법연화경, 사십이장경, 요범사훈, 초전법륜경, 불교미술설화 등 다양한 경전과 불교 사상을 폭넓게 다룬다.

입학식은 3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불교대학원의 경우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불교대학 1·2학년 과정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접수는 종무소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며, 입학원서와 증명사진 제출이 필요하다. 055-382-7182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운영하는 범어사 금정불교대학은 2026년 신입생과 경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기본반 과정은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신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1년 과정으로, 사찰예절과 기초교리, 부처님 생애, 보현행원, 반야심경과 천수경 독송, 초발심자경문 등 신행의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주간반(오전 10시~12시)과 야간반(저녁 7시~9시)으로 운영되며,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과 양정교육관에서 진행된다. 기본강좌 외에도 템플스테이와 삼사순례,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경전반은 보다 심화된 불교 이해를 원하는 신도들을 위한 과정으로, 요일별로 다양한 경전과 불교 사상을 배울 수 있도록 편성됐다. 금강경오가해, 능엄경, 원각경, 법화경, 육조단경, 사십이장경, 중국 선문화 등 불교의 핵심 경전과 사상을 폭넓게 다루며, 오전·오후·저녁반으로 나뉘어 수강이 가능하다. 강의는 범어사 교육국 스님들과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이 맡는다. 051-866-7277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 홍법불교대학도 2026년 16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진행되며, 주간반은 오전 11시, 야간반은 오후 8시에 운영된다. 직장인과 일반 재가불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나눠 구성했다.

교육 과정은 신행과정 1년과 경전과정 1년으로 마련됐다. 신행과정에서는 불교입문과 불교개설을 중심으로 불교 전반의 기초를 다루며, 경전과정에서는 초발심자경문, 천수경, 반야심경 등을 공부한다. 이와 함께 명상과정을 신규로 개설 운영해 다양한 방식의 불교 공부 기회를 제공한다. 051-508-0345

교직원 불자들, 선운사서 초심 다져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
1월 9~11일…70명 참석



전국 교직원 불자들이 새해를 맞아 고창 선운사에서 초심을 다졌다.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김경희)는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선운사에서 불기 2570년 겨울수련회 ‘노래 몸짓 수행 정진 그리고 사찰 순례’를 진행했다.

수련회에 앞서 열린 입재식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 선운사 교무국장 성종 스님과 연수원장 지태 스님을 비롯해 김경희 회장 및 불자 교사 7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정무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교사들의 수행과 인재 양성의 노고를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교육은 중생을 제도하는 가장 위대한 방편”이라며 교직원 불자들이 교육 현장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수행자이자 선지식임을 강조했다.

김경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직원 불자들은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배우고 닦아야 할 수행자”라며 “이번 수련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교육 현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 불자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대전 회장 권상철 교사와 서울 태란희 홍보부장에게 총무원장상이 수여됐다.

수련회 기간에는 지장사 수안 스님이 기타 연주와 노래를 통해 신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전북 사무국장 정서윤 교사가 ‘부처님과 춤을’ 프로그램을 지도했다. 국제포교사 전 회장인 정혜 스님도 법문을 통해 수행의 의미를 전했다. 또 새벽예불과 108배, 참선 수행을 체험했다. 회향식에서는 연합회 임원 총회 인준을 거쳐 회장 연임이 확정됐다.

연임이 확정된 김경희 회장은 “교직원 불자들이 교육 현장에서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갈 수 있도록 수행과 신행을 잇는 연합회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관음사 선혜단이슬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개최

부산 관음사(회주 지현 스님)는 1월 11일 환희요양원 5층 강당에서 ‘제5회 선혜단이슬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선음합창단 창단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에서 선혜단이슬합창단원 어린이들은 명상곡 ‘나모아바로기테사바라’를 시작으로 ‘마음의 그릇’, ‘연꽃법당’ 등으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2부 무대에서는 ‘바람의 노래’, ‘꽃밭에서’ 등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곡들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자모합창단인 선음합창단도 무대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어린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부처님을 친양하는 찬불가 합창은 도량에 환희를 더하는 공덕”이라며 “아이들과 자모들이 함께 준비한 이 자리가 불자들에게 기쁨과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엄승가원, 병오년 신년하례 봉행

‘종단 화합 · 자비 실천’ 서원



대한불교화엄승가원(종정 자인 스님)이 새해를 맞아 1월 9일 부산 길상사에서 종단의 화합과 도약을 발원하는 신년하례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종정 자인 대종사, 총무원장 대각 스님, 원로회의장 태산 스님, 종회의장 혜월 스님, 총무부원장 원각 스님을 비롯한 종단 원로와 종도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 서원을 다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종정 자인 스님은 신년 법어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사문의 인연으로 종단 창종과 신년법회에 함께하며 불·보살님의 가피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며 “반야의 지혜는 교만과 탐욕의 마음에서 나오는 벽을 허물고 삼라만상이 서로 의지해 존재하는 연기법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고 설했다.

이어 “지난 시간 각 사암과 종도들이 한마음으로 정진하며 부처님 도량을 지켜 온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법도생과 화합으로 정법을 펼쳐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대각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우리 종단은 화려한 성과보다 기초를 다지며 방향을 점검하는 데 힘을 모아 왔다”며 “병오년은 종도를 모으고 종단의 틀을 바로 세워 이 시대에 부처님 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이 다짐하는 해가 되자”고 말했다.

이어진 신년하례에서는 사부대중이 차례로 합장 배례하며 종단이 나아갈 방향과 수행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시 확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경찰청 불자회, 신년법회서 ‘성장 발원’

1월 14일, 효천 스님 법문



부산 경찰 불자들이 신년 첫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부처님의 생애를 수행의 기초로 삼아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는 한 해의 출발을 알렸다.

부산경찰청 불자회(회장 강용창)는 1월 14일 부산경찰청 경승실(1층)에서 2026년 신년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지도법사 효천 스님(범어사 교무국장)을 비롯해 강용창 회장, 이상훈 고문 등 경찰 불자회원 20여 명이 동참해 신년 수행의 첫걸음을 함께했다.〈사진〉

효천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아는 것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깨달음에 이른 길을 자신의 삶에 비춰 보는 수행의 출발점”이라며 “신년 첫 법회에서 부처님의 삶을 되새기는 것은 한 해의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설했다.

강용창 회장은 신년법회의 의미를 전하며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는 것은 모든 수행의 기초”라며 “신년 첫 법회에서 부처님의 삶을 공부하는 것은 수행자로서 한 해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삼론종, ‘승랑 대사 선양사업 원년’ 선포

1월 10일 신년하례…수계대법회 등 예고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남륜 스님)이 1월 10일 포천 보문정사에서 종단의 결속을 다지는 ‘2026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올해를 ‘승랑 대사 선양사업 원년’으로 선포했다.〈사진〉

법회에는 종정 혜승 스님과 총무원장 남륜 스님, 종회의장 지경 스님, 삼론불교대학 학장 진봉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종정 혜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이며, 첫 발심이 변하지 않을 때 곧 깨달음에 이른다”며 “천 리 길도 첫발이 중요하듯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초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삼론종은 더욱 굳건한 종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했다.

종단 차원의 수계법회 활성화도 강조했다. 혜승 스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종단이 해야 할 가장 큰 불사”라며 수계를 통해 신심을 세우고 종도와 신행 공동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남륜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승랑대사 선양사업 원년’으로 선포했다.

남륜 스님은 “승랑 대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한국불교 사상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학술·교육·수행 전반에서 그 정신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남륜 스님은 “어려울수록 불필요한 관행을 내려놓고 삼론의 본령인 중도와 공사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부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화합과 소통, 민생의 소망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노덕현 기자

여래종, 8월 창종 60주년 대법회 연다

1월 10일 신년하례…4월 사리보탑 제막



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 스님)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종단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여래종은 1월 10일 오천 대약사사에서 ‘2026년 종단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새해의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사진〉

법회에는 총무원장 명안 스님을 비롯해 원로원장 석산 스님, 부원장 혜안 스님, 교육원장 무극 스님, 문도회장 묘선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이창호 여래구도봉사단장 등 사부대중 80여 명이 동참해 종단의 안녕과 발전을 한마음으로 발원했다.

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전 종도가 화합하고 수행 정진하는 가운데 여래종의 기반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포교와 수행, 나눔행의 실천을 지속해 세계 불교 속에서 여래종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 해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여래종은 2026년도 주요 종책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종단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래종은 오는 4월 22일 창종주 인왕 대승정연화 사리보탑 제막식을 열어 창종주의 뜻을 되새기고 종단의 정체성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8월 23일에는 ‘인왕 대승정 열반 10주기 및 창종 6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여래종은 “올해는 창종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창종주 사리보탑 제막을 비롯해 창종 60주년 기념 대법회를 통해 종단 발전의 원년을 삼겠다”고 밝혔다.

신년하례법회 동참 대중들은 올 한 해 종단의 원만한 운영과 불교 중흥을 기원하고 창종 60주년을 맞는 의미를 되새기며 법회를 회향했다.

노덕현 기자

일붕선교종, 신년하례서 화합 발원

1월 15일…삼성사 복구 성금 전달



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1월 15일 서울 일붕선원에서 ‘불기 2570년 병오년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종단의 화합과 도약을 발원했다.〈사진〉

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이 만물을 일으켜 세우듯, 지난 한 해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나라와 국민이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의 ‘동체대비 세계일화’ 가르침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어두운 데까지 차별 없이 비춰 화합과 평화와 번영의 대동세상을 향해 붉은 말처럼 용맹하게 달려 나가자”고 당부했다.

재단이사장 일명 스님은 신년 인사를 통해 “종단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불법 홍포에 매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정 대륜 스님은 법문에서 “지금 세상은 ‘나’와 ‘남’을 나누는 분별심으로 소란스럽지만, 거울 속의 그림자와 싸워 이길 수는 없다”며 “갈등은 밖이 아닌 내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고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멈춰 안으로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살피라”고 설했다.

이날 뜻깊은 자비나눔도 이뤄졌다. 일붕선교종은 최근 화재로 소실된 용인 삼성사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1170만원을 전달하며 아픔을 함께 나눴다. 대종사 부명 스님도 삼성사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일붕선교종은 지난해 11월 10일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승려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품서식에서는 붕원·동청·지언·경담 스님이 대종사 법계, 제법 스님이 명사 법계를 품수했다.

노덕현 기자